

광주·전남 공립미술관 9곳 중 4곳만 인증

광주시립·진도 남도전통·무안 오송우·영암 하정웅 미술관 등 문체부 평가, 전남 7개 중 3개 기관만... "내실 운영 뒤따라야"

전남 지역에는 공립미술관이 타 지역에 비해 많지만 운영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공립미술관 평가 인증'을 시행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3년을 경과한 공립미술관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전남 미술관들의 인증률은 저조했다. 53개 기관이 평가를 받아 최종 41개 기관이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고 인증률은 74%다. 반면 광주·전남 지역의 미술관은 인증 대상 기관 9곳 가운데 4곳만 인증돼 38.5%였다. 특히 전남 지역은 7곳 중 3개 기관만 인증 기관으로 선정돼 전북(33.2%)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인증 기관으로 선정된 공립미술관은 광주시립미술관, 진도 남도전통미술관, 무안군 오송우미술관,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등 4곳이다. 반면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과 목포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보성군립백민미술관, 함평군립미술관, 옥과 전남도립미술관(현 아산조방원미술관·전남도립미술관 분관)은 인증에서 탈락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 지역은 대상 기관이 시립미술관과 금봉미술관 두 곳이었지만 전남은 대상 기관이 7곳으로 경기도(9곳)에 이어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9개 기관 중 양주시립장육진미술관,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등 8개 기관이 인증된 데 반해 전남은 절반 이상이 탈락했다. 평가 대상 기관이 전남과 같은 7곳이었던 제주의 경우 제주 추사관 등 전체가 모두 인증을 받

아 전남과는 대조를 보였다.

무엇보다 전남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공공 미술관 수는 많지만 탈락률은 높아 유행처럼 무조건 미술관 문을 열고 엇비슷한 전시를 기획할 게 아니라 체계가 잡힌 내실 있는 운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군 단위 공립미술관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평가 대상을 살펴보면 전남은 5곳, 경기도 2곳, 강원도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등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월 55개 공립미술관(2개 기관은 리모델링으로 평가 제외)을 지정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평가지표에 따라 자료 평가와 현장 평가를 진행한 후 '평가인증심사 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등 5개 범주(14개 지표)에서 이뤄졌고 총점 평균은 77.6점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인증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서울시립미술관이었고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관리 적정성' 범주에서는 부산시립미술관이,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범주에서는 백남준아트센터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은 미술관 운영 성과를 내실화하고 문화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시범 운영을 통해 2020년 처음 시작됐고 격년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운영 전반을 평가하되, 운영 주체별(광역·기초), 미술관의 설립목적별(작가 중심 기관·지자체 대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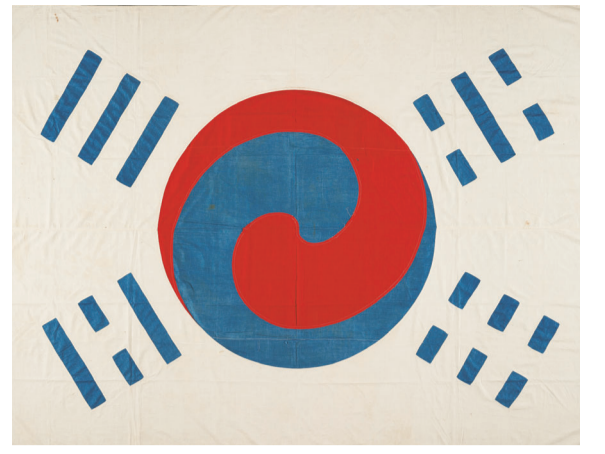
관), 규모와 인력의 차이로 인해 미술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모와 성격에 관계 없이 기관별 최근 3년간 운영 개선 실적을 평가해 반영했다.

3월중에는 공동연수회를 열어 공립미술관 관계자들과 평가 인증 결과를 공유하며 하반기에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표별 미흡한 사례에 대해 상담할 계획이다.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은 미술관 운영 성과를 내실화하고 문화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격년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문체부는 탈락 미술관과 개별 미술관의 점수는 밝히지 않았다. 탈락 미술관은 지난해 1월 고시된 평가 대상기관 고시를 참조해 파악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

국립중앙박물관, 3·1절 특별공개

국립중앙박물관은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데니 태극기' (등록문화재 제382호)를 오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상설전시실 대안제국실에서 특별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태극기는 고종(재위 1863~1907)이 외교고문인 오언 데니가 1890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하사한 것이다.

데니는 1886년 청나라의 리홍장 추천으로 외교고문이 됐지만, 청의 간섭을 비판하고 조선이 주권독립국임을 주장하다 1890년 파면돼 미국으로 돌아갔다.

태극기 크기는 가로 263cm, 세로 180cm다. 흰색 광목 두 폭을 이은 천에 붉은색과 푸른색 천을 오려서 바느질한 태극기를 달았다. 4개의 형태와 배치는 지금의 태극기와 같지만 색은 검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다.

이 태극기는 데니의 후손인 윌리엄 랭스턴이 1981년 우리나라에 기증했다.

/연합뉴스

풍물천지 아리술 상쇠 안시현

24일 첫 개인발표회...북구문화센터

국악영재와 함께 국악의 매력을 만나보자. 국악 단체 풍물천지 아리술의 상쇠를 맡고 있는 안시현(17·사진) 양의 첫 개인발표회가 오는 24일 오후 6시 북구문화센터(광주시 북구 하서로 299)에서 열린다.



안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의 권유로 동생과 함께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를 찾았고, 이후 어린이국악단 아리술에서 상쇠를 맡으며 본격적인 국악의 길에 입문하게 됐다.

안 양은 제6회 모어리국악영재 경연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2018년 유럽 3개국 순회 공연, 2019년 미주한국어재단 초청 미국 공연과 국민대통합 '아리랑' 공연에 2019년과 2020년 모두 참가하는 등 국내외 굵직한 공연에 참여하며 실력을 쌓아오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전통줄타기에도 입문해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국악 인재다.

이번 공연은 풍물천지 아리술 단원들이 특별 출연해 타악 퍼포먼스 '북의 향연'을 시작으로 '판'과 '타조'로 만들어 머리에 쓴 부포를 이용한 '부포놀이', 사물놀이 가락 중 판과리 개인놀이를 특화한 작품인 '얇은반 쇠' 등을 선보인다.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로 무대에 올라 피리 산조, 대금 연주 등을 들려준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 010-8622-158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우리 민족의 '한' 춤으로 승화

'명인명무전'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공옥진 등 영상 상영도



이운제 '한량무'

우리 민족의 한(恨)과 설움을 영상과 춤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31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들의 춤을 무대에 올려온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이 '제 104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준비했다. 25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명인명무전'은 전통의 원형 보존과 전승이라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전통춤의 뿌리를 지켜가면서 전통춤과 소리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내재화시킨 공연으로 동국예술기획과 한국명인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명인원과 하늘 땅풍물놀이예술단이 주관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한진옥류호남검무' (김자연), '동초수견춤 (최해리)', '밤길' (박아림), '한량무' (이운제·이명순), '이매방류살풀이춤' (정유경), '진도복춤 (최미령)', '수견인춤 (허순선)', '강선영류태평무' (한민정), '승무 (김창우)', '판국선반' (이민영) 등을 선보인다.

공연에는 박동국 동국예술기획 대표가 해설자로 등장해 작품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날 본공연에 앞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과거 명인명무전에 출연했던 대한민국 최고 원로 명인들의 생전 공연 영상을 한데 모아 상영하는 것이다. 한국 무용의 전설 공옥진 선생, 이매방 선생 등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명인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동국예술기획은 1990년 첫 무대를 시작으로 그동안 조선시대의 마지막 무동 명무 김천



김자연 '한진옥류호남검무'

흥 선생을 비롯해 판소리 명창 박동진 선생, 호남검무 명무 한진옥 선생, 일인장무극 공옥진 선생, 배병이극 이은관 선생, 여창가곡 김월하 선생, 가야금병창 박귀희 선생 등 다양한 전통 예술분야의 명인들의 무대를 선보여 왔다.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A석 3만원. 문의 010-4762-433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공무원 덕림씨' 저자 최덕림씨 25일 '공공일자리' 공개강좌

'공무원 덕림씨'의 저자 최덕림씨(사진)가 25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10년 후그라운드(광주시 남구 양촌길 1)에서 강연한다. '10년 후 유치원' 특강에 초청된 최씨는 이번 강의에서 '공공일자리:내일의 키워드'를 주제로 공개강좌를 펼친다.



3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최씨는 지방 행정의 기적으로 불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으로 이끈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의 달인 1호로 선정됐다. 또 우리나라 공무원 최초로 TED에서 초청강연을 하기도 했다.

공직생활의 경험들이 담겨있는 저서 '공무원 덕림씨'는 공직생들에게 면접 준비 필독서로 꼽힌다. 그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다"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며 공공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씨는 이번 강의에서 공공일자리 미래를 엿보고 공직생들과 초임공직자들을 위한 커리어 조언을 나눈다. 참여자는 온라인으로 30명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070-4239-504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